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EBS 플러스1 and 플러스2 program schedule tables.

“첫 예능 도전, 내 안의 새로운 모습 봤다”

배우 한혜진, SBS 토크쇼 ‘힐링캠프...’ MC 맹활약

브라운속 배우 한혜진(사진)은 강인한 나라의 국모(‘주몽’의 소서노)였고 씩씩한 여학사(‘꽃보다 남자’의 김수현)였으며 명랑한 신여성(‘제중원의 유석란’)이었다.

현명하고 똑 부러지는 이미지가 대중에게 익숙한 한혜진의 모습이였다. 그런 그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아이돌 그룹의 춤을 추고 유명 정치인에게 거침없이 별명을 붙여준다.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그렇지만 의외성 때문에 시청자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이미지였는데 의외로 우리랑 똑같은 재미있는 사람이라 더 재미있게 봐주시는 듯해요.”

‘힐링캠프’ 출연은 시기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촬영하던 영화 제작에 차질이 생기면서 본의 아니게 공백기가 생겼고 그때 마침 제작진의 섭외가 온 것.

“광소 예능을 좋아했는데 취지도 정말 좋았고 이경규, 김제동 선배랑 해서 부담감도 없었어요. ‘늘면 뭐해, 머라도 해야지’ 생각했죠.(웃음)” 그렇게 작년 7월 첫 예능 도전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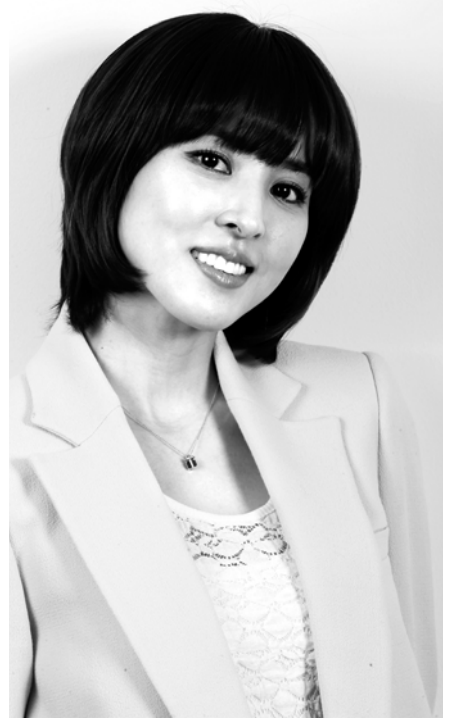
그러나 시작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잠이 안 올 정도로 혼란 적응기를 보낸 그는 엄지원, 유준상 등 배우 게스트들과 만나서 MC로서 제 역할을 찾기 시작했다.

“여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두 선배(이경규, 김제동)보다 덜 살았기 때문에 내 나이 또래에게 맞는 질문을 던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능 초보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질문을 던지면 되겠구나 싶었죠.”

예능 MC로서 한혜진의 활약이 빛났던 순간은 박근혜, 문재인 편이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인 만큼 스태프 전체가 긴장했지만 한혜진은 능청스럽게 ‘야근해’ ‘문제일’과 같은 별명을 붙이며 웃음을 선사했다.

“제가 남들보다 모르다 보니깐 오히려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처럼 정치에 관심 두고 싶지 않고 정치인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 제작진의 섭외가 온 것.”

“한혜진은 기억에 남는 게스트로 이미숙과 최민식을 꼽으며 ‘내가 배우여서 배우들이



나오시면 제자 입장에서 듣게 되더라. 이미숙 선배에게 많이 배웠고 최민식 선배는 여론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로는 강호동을 꼽았다.

자신의 말처럼 한혜진은 최근 음반 피쳐링과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방영을 앞둔 JTBC의 의학드라마 ‘신드롬’에서는 열혈 여의사로 분한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7일(음 1월 16일 戊戌). 운세 forecast for various zodiac signs including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three columns: 1. I'm mad about her (English to Korean), 2. 貪心鬼 (Chinese to Korean), 3. 彼女は日本語の先生だそうです (Japanese to Korean).